



비너스 위켄의 '윌블던 비너스' 피론코바

불가리아의 초베타나 피론코바가 런던에서 열린 윌블던 테니스대회 16강전에서 미국의 비너스 윌리엄스를 2-0으로 제압한 뒤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주 “우즈 빠진 ‘우즈 대회’ 주인은 나”

PGA 투어 AT&T 내셔널 내일 개막

30일(이하 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뉴타운 스퀘어의 에러니킨크 골프장(파70·7237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총상금 620만 달러)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타이거우즈 재단이 주최하는 대회다.

우즈는 무릎 부상이 낫지 않아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공식 인터뷰 등의 행사에만 참여할 예정이다. 우즈가 빠진 ‘우즈 대회’로 치러지게 됐지만 볼거리는 많다. 우선 이 대회는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깊다.

최경주(41·SK텔레콤)가 이 대회 출범 원년인 2007년 우승을 차지했고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골프)이 2008년 정상에 올랐다.

올해도 최경주와 앤서니 김이 패권 탈환에 도전하고 위창수(39·테일러메이드)와 나상욱(28·타이틀리스트)이 출전한다. 5월 제5의 메이저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최경주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올 들어 299만6104달러의 상금을 쌓은 최경주는 지난주까지 상금 랭킹 2위에 올라 있었지만 트래블러스 챔피언십이 끝난 뒤 4위로 밀려났다. 최경주가 시즌 상금 3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2007년(458만 달러) 이후 두 번째다.

최근 PGA 투어에서 화제를 불러모은 패트릭 캔틀레이(미국)와 에릭 컴튼(미국)도 이 대회에 출전한다. 아마추어인 캔틀레이는 트래블러스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10언더파 60타를 기록하며 ‘깜짝 선두’에 나선 선수다. 올해 US오픈에서도 아마추어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공동 21위)을 내는 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컴튼은 26일 끝난 PGA 2부 투어 네이션 와이드 투어 맥시코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심장 이식 수술을 두 차례나 받은 이력 때문에 ‘인간 승리’의 주인공으로 화제의 인물이 됐다. 컴튼이 정규 투어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팬들의 시선이 쏠려 있다.

출전 선수 가운데 세계 랭킹이 가장 높은



사람이 15위인 닉 와트니(미국)일 정도로 상위 랭커들이 많이 빠져 한국 선수들이나 컴튼, 캔틀레이가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부터 AT&T 내셔널이 열리는 애러니킨크 골프장은 그린리 까다롭기로 유명한

곳이다. 작년 시즌에 열린 41개 대회 가운데 두 번째로 평균 버디 수가 적었다. 그러나 그린적중률은 지난해 대회 가운데 25위에 올라 그린에서의 플레이가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대회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07년 최경주 우승 08년엔 앤서니 김 한국 선수와 인연

한·일 골프 누가 더 셀까

7월 1일부터 ‘밀리언야드컵’ ... 양국 스타 출동 샷대결



한국 양용은

한국과 일본의 남자 프로골퍼들이 양국의 명예를 걸고 7월 1일부터 사흘간 김해 정산 골프장에서 샷대결을 벌인다.

한국과 일본의 프로골프투어는 이번 대회를 세계적인 국가대항전 브랜드로 키우자는 데 뜻을 모아 ‘밀리언야드컵’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대회 엠블럼과 트로피를 새로 제작했다.

밀리언야드컵은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간의 평균 거리인 950km를 야드(yard)로 환산하면 약 100만 야드가 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다.

작년 대회에서 일본에 패했던 한국은 아시아 최초의 메이저대회 우승자인 양용은(39·KB금융그룹)을 합류시켜 전력을 강화했다.

2010년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상금왕 김경태(25·신한금융그룹)와 일본에서 활약하는 김도훈

(22·넥스), 2008·2009년 코리아투어 상금왕인 배상문(25·우리투자증권)이 힘을 보탠다.

일본에선 스타 플레이어 이시카와 료와 후지카 히로유키, 이케다 유타, 다카야마 다다히로 등 작년도 상금 순위에서 상위 포진한 선수들이 나선다.

대회 첫날인 7월 1일에는 포섬 스트로크 플레이(같은 팀 두 명의 선수가 한 개의 공을 번갈아 치는 게임), 풀체 날에는 포볼 스트로크 플레이(같은 팀 두 명의 선수가 각각 볼을 쳐 좋은 점수를 적어내는 게임) 방식으로 경기를 펼친다. 대회 마지막 날에는 각 팀 10명의 선수가 맞대결하는 싱글 스트로크 방식으로 승부를 가린다. 승리한 팀은 승점 1점을 얻고 비기면 0.5점씩 나눠 갖는다.

동점으로 경기가 끝나면 대표선수 1명이 승부를 결정짓는 플레이오프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일본 이시카와 료

‘피겨 여왕’ 김연아·곽민정 그랑프리 명단 제외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새 시즌의 그랑프리 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됐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28일 홈페이지에 2011~2012시즌 시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의 대회별 초청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ISU는 여자 싱글 출전 선수 명단에 아예 김연아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연아는 지난 4월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친 직후 그랑프리 시리즈에 출전하지 않고

평창의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지원 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연아는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출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ISU에 전해 공식적으로 초청 선수 명단에서 빠졌다.

지난 시즌 그랑프리 시리즈 무대를 밟았던 곽민정(17·수리고)도 올 시즌에는 출전이 불발됐다. 김연아와 곽민정이 모두 빠지면서 한국은 6년 만에 그랑프리 시리즈에 한 명의 선수도 출전시키지 못하게 됐다. /연합뉴스

수원·전북,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움직임

수원이 프로야구단 유치 작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수원시가 프로야구 제10구단 창단 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수원시는 계획안에서 창단기업에 대하여 야구장 명칭사용권을 부여하고, 200여원의 예산을 투자해 기존 수원구장의 관람석 정비 및 VIP실, 스카이박스, 풀커러 동양선 전광판 설치, 조명타워, 기구 교체 등의 리모델

링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수원·화성·오산 통합시 신규 구장 건립을 추진하고, 야구장 장기임대(3~25년) 방안과 함께 야구장 내 식음료 판매권 및 광고권리 보장을 통해 제 10구단 창단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라북도도 조만간 KBO에 프로야구단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제 10구단 창단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아름다운 결혼의 시작 신양파크 호텔과 함께

Cool Wedding Event

웨딩/특전
 허니문룸 1박
 조식2인(웨딩 전일 또는 당일)
 온돌 폐백식 / 폐백용품제공
 아이스크빙 제공

웨딩 축하 케이크 제공
 꽃길 서비스
 특수 연출 서비스
 신양 허니문 카드 증정

Special Rate

뷔페 ₩29,000 / ₩33,000
양식 ₩33,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35,000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이 세상 누구보다 아름다운 당신 눈부심과 설렘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기간 | 2011년 7월 1일 ~ 9월 30일 예약문의 : Tel. 062)228-4711~2 / 062)221-4101~3